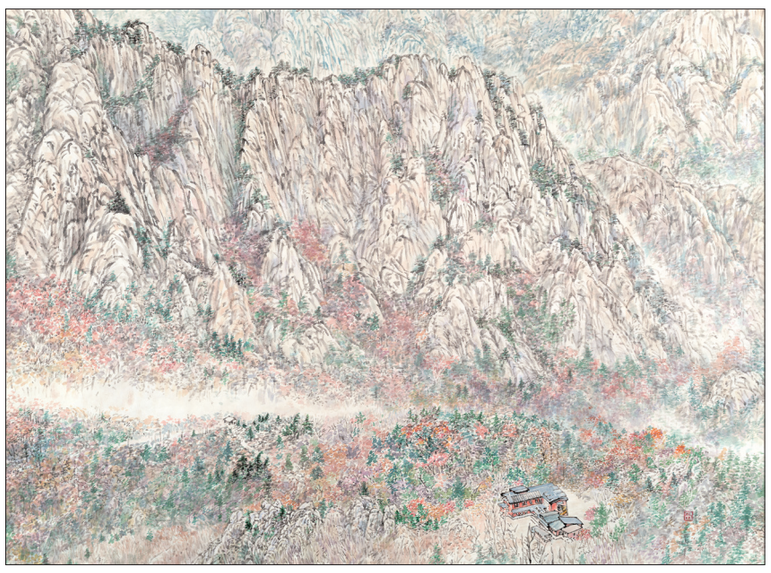
# 산과 돌이 이룬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

**한경혜 개인전 '우리산 우리물'**
**설악산 · 운주사 석불 주제로**
**4월 1일까지 갤러리인사아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악산 희운각. 한지에 수묵담채. 147 x113cm. 2024


2023년 설악산에서. 작가는 "설악산은 2023년 나의 친구가 돼 줬다"고 말했다.

한경혜 한국화가가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실경 산수화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3월 27일~4월 1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 본 전시장에서 열리는 '한경혜 개인전 : 우리 산, 우리 물'을 통해서다.

한경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장에서 체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설악산과 운주사 석불이다.

작가는 지난해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산소가 가득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설악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희운각과 천불동계곡의 오련폭포를 만났다. 대청봉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웅장한 산세를 마주한 가운데 만난 아주 자그마한 희운각. 작가는 눈 내리기 전, 눈이 시리도록 청아한 늦가을의 정경을 수묵담채와 부감법으로 표현해 '설악산 희운각'을 완성했다.

한 작가는 "대화의 대상을 자연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설악산으로 향한 작가는 "설악산은 수려하고 화려한 산세와 변화무쌍한 날씨가 한몫해 도착지까지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안도의 한숨으로 순간의 생명이 지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한경혜 작가의 작품에서 불상도 빠질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 또다른 신작 '운주사 석조불감' '천불천탑 운주사'을 공개한 한 작가는 "운주사의 각기 다른 석불들은 한없이 끝없는 고달픈 민초들의 삶, 카르마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고 그 속에서 민초들의 염원은 평등과 평화였다"면서 "각기 다른 형상들이 말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평범한 인간세계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혜 작가는 물과 돌 등 자연을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계곡의 물속이나 바닷속 모습을 수묵담채로 생생하게 묘사해 왔고 전국의 명산과 섬을 찾아다니며 물과 돌을 한지에 담았다.

한 작가는 "전국 명산, 섬, 사찰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차츰 범위를 넓혀서 그림에 담으려고 한다"면서 "어릴적부터 사람보다 자연을 좋아했고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됐다. 산과 물은 우리들을 말없이 반겨주고 품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혜 작가는 날마다 1000배를 하는 화가이자 수행자이기도 하다. 갓 돌이 지났을 때 앓았던 뇌성마비로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일곱 살 때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만났다. "하루에 1000배씩 하면 오래 산다"는 스님의 말에 매일 절을 한 결과 비틀렸던 몸이 풀리며 균형을 잡고 제대로 걷기 시작했다. 2009년엔 자신의 절수행 체험기 〈오체투지〉를 출간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1000배를 하는 한 작가는 "절하는 것도 내 신체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 국난극복 상징 '해인사 대장경판' 웹으로 만난다

**문화재청, 정밀촬영 · 디지털 거쳐**
**내년부터 대국민 웹서비스 구축**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사진제공=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웹에서 만날볼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3월 18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누구가 쉽게 활용 가능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려 고종(高宗)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1236년에서 1251년까지 16년 동안 불교 경전을 목판에 새겨 만든 경판(經板)이다. 해인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장경판전(藏經板殿) 안에 보관돼 왔다.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2007년 등재), 장경판전은 세계유산(1995년 등재)으로 각각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장경판에 새겨진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경판을 먹으로 인쇄해 책으로 묶은 인경본(印經本)이 고려시대부터 전국의 주요 사찰 등에 봉안된 바 있었다. 현재는 국내 일부 보관본과 고려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본만이 남아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통로도 드물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으로 경판에 대한 기초학술 조사(경판의 정밀 기록, 보존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한 보존대책 마련, 각 경판 정밀사진 촬영, 전통방식의 인경본 제작 후 디지털 자료화(스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누구나 쉽게 경판을 열람하고 그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장경판 활용 웹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 쉽게 이해하는 조선시대 발원문

**〈불상이 만든 염원 발원문1〉 출간**



도해 스님 譯
최선일 編
도서출판 온샘
4만 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처님을 조성하고 각종 불사를 할 때 시주와 보시를 하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이다. 각 사찰의 수많은 불상은 각자의 지극한 발원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불사다. 그런 마음을 담은 발원과 원력을 기록한 발원문을 부처님 복장에 안치하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조선시대 발원문을 번역한 책이 간행됐다. 최근 도해 스님의 풀이로 출간된 〈불상을 만든 염원 발원문1〉은 문자의 벽이 높고 난해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발원문(發願文)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책이다. 17세기 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조성과 중수된 불상의 발원문을 대상으로 한다.

경전에서는 중생의 지위에서 처음으로 발심한 수행자가 스스로 원대한 수행목표를 세우고 불과(佛果)인 보리를 증득하려는 서원을 발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의 성취를 맹세하고 소망하는 결의문들을 모두 발원문이라 통칭한다. 수행자가 보리를 득하고 중생을 교화·제도하고자 시작된 발원문이 세속의 중생들이 선을 닦고 복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 취지의 전후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발원문은 불심과 불사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보문화유산으로서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전래의 기록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문자의 벽이 높았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풀어서 역사적 이해를 폭넓게 가져다 준 책의 출간은 의미를 더한다.

여수 달마사 주지 도해 스님이 난해한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풀어서 정리했다.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이 옥고를 다듬고 직접 촬영한 발원문 사진을 공개해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감수를, 수안 스님이 윤문했다. 임은호 기자

# 도일 스님 108 청룡전…3천일 기도회향

**3월 27일~4월 8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봉축 특별전시**




오봉산 석굴암에서 두문불출 3000일 기도를 회향한 오봉 도일 스님이 부처님 원력으로 청룡의 힘찬 기운을 담은 청룡 108 서예 걸작품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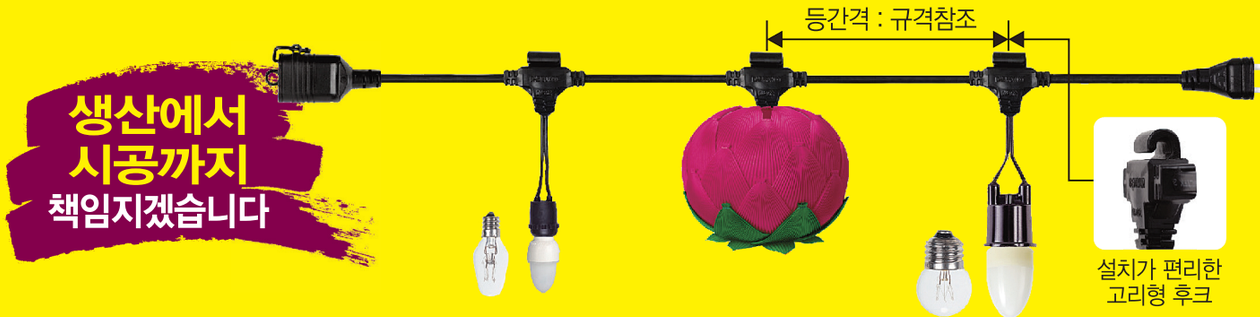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개최되는 '한국미술관 초청 오봉 도일 스님 108 청룡전'은 부처님 가피와 원력으로 국가번영과 시민들 가정, 사업체에 청룡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준비됐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으로 준비된 이번 전시는 오봉 도일 스님이 기도와 신심으로 준비한 108점의 용(龍) 작품으로 꾸며진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담은 청룡 108 서예 걸작품과 함께 청룡의 기를 담은 옻칠목 항아리, 옻칠 다기, 달항아리, 청룡등, 선묵화, 도자필, 칠서품 등 다양한 용 작품으로 전통예술의 미적 묘경을 전한다.

한편 이번 특별전시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 노인복지관 운영기금, 경로잔치 등 자비나눔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